

# ‘강진품애(愛) 살기 운동’ 적극 전개



강진군이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수 3만 5천 명 선을 지키기 위해 ‘강진품애(愛) 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강진품애(愛) 살기 운동은 공직자부터 출신수범해 강진 관내에 거주할 것을 독려하고 주민 중 관외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주소 바로 두기를 권장하는 운동이다. 귀농, 귀어, 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고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중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강진에서 살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로 강진품애 살기운동 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었지만 군은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각 기관마다 게시하고, LED 광고 송출로 인구 유입에 총력대응했다.

이에 최근 관내 학교에서는 지

강진군, 인구감소 문제 해결 위해 권장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등 활용

난 3월 인사발령 후 새로 발령 온 교사 및 교직원 50여 명이 군으로 전입을 마쳤다.

또 도암면 다산배아체 사업장 및 동원F&B 강진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활용해 강진품애 살기 운동에 동참했다.

운동이 활성화 됨에 따라 올해부터 강진품애 살기운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체에 대해 연 2회 시상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지난 16일 실무자 회의를 통해 상반기 평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다.

또한 군은 행안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돼 강진읍 서성리 일대에 ‘맘편한 우리아이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센터는 편의성 높은 육아 환경 제공으로 관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은 “일 자리를 찾아 도시로만 떠나는 젊은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고 이들이 다시 강진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진산단 분양 100% 완료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 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등 강진 곳곳에서 활력 넘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진품애 살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 하다면 인구문제에 있어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완도군, ‘색깔보리’ 상품 판매 나선다

완도군은 지난 1일부터 청산도를 시작으로 5개 읍면 130ha에서 검정보리, 자색보리, 청색보리 등 5종의 색깔보리 약 400톤을 수확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양한 판매 방식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홀소핑을 통해 색깔보리 상품, 발아보리커피 판매에 나섰다.

처음 출시하는 색깔보리 상품은 검정, 자색, 청색, 황색 4종을 혼합한 ‘청산도 컬러보리’ 상품으로 ns홀소핑을 통해 6월 22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40분간 판매

알려져 있다.

특히 자색보리는 안토시아닌과 단백질, 베타글루칸, 폴리페놀, 플로보노이드가 풍부하다.

청색보리는 두뇌 활동을 높여주고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B6가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도 높다.

군은 색깔보리를 2018년 처음 도입하였으며, 완도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먹거리 기반을 조성하고, 청산도 관광특산물로 개발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배

1일 청산도 시작 5개 읍면 130ha서  
검정·자색 보리 등 5종 400톤 수확  
오는 22일 오후 ns홀소핑 통해 판매

한다.

아울러 청산도산 검정보리 30%와 커피 70%를 혼합한 ‘청산도 발아보리커피’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청산도 발아보리커피는 안토시아닌 고함량 등 검정보리의 영양 성분이 들어있고, 카페인이 적어 향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을 지니고 있다.

색깔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며,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칼슘과 철의 함량이 쌀에 비해 각각 8배, 5배나 높아 기능성 작물로

농업 환경이 깨끗하고, 미세먼지가 적은 곳으로 자연 그대로 친환경 농법을 통해 치유 기능성 농산물을 계속 개발하여 농가 소득 향상 및 국민 건강에 기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색깔보리 특산물 사업을 개발한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이병연 식량작물팀장은 “이번에 완도군에서 판매하는 색깔보리는 값이 싸면서도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성 치유 농산물이다.”며 “정정 지역에서 재배된 완도산 농특산물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명수 기자

## 장흥군, 학대 위기아동 일제조사

사전 예방·조기 발견 위한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장흥군은 최근 천안, 창녕 등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관내 만18세 미만 아동의 아동학대 예방 및 적극적인 조기발견을 위해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 각 읍면에서는 이웃, 학교, 보육시설, 부녀회장, 복지이

장 등을 활용하여 방임우려 가구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추후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합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도 점검해 입소아동의 건강과 위생 상태를 면밀히 관

찰하여 학대사태여부를 확인한다.

4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정기 모니터링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피해아동 분리 등 보호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전문적인 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일제조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학대 사례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내 위기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 영암군, 레지오넬라증 사전 예방 점검 실시

영암군은 냉방기와 물 사용이 증가하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다중이용시설인 대형건물, 호텔, 요양병원, 온천,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냉각탑수, 온천수, 냉·온수 등의 환경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가 진행되며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재검사 및 청소·소독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사전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건물의 냉·온수, 목욕탕 욕조수 등의 인공수계시설이 감염원으로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의 균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어 발열, 기침, 근육통, 초기독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시설들은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여 레지오넬라증 감염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진도군, 축산 폭염피해 예방위해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1억여 원 투입 사전예방 강화

진도군이 축산분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대비 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예년대비 20일 이상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반은 20여명으로 대응팀을



구성하고 축산분야 기관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피해조

사와 응급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총 1억여원을 투입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약품 구입지원 ▲폭염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등 폭염 대비 사업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